

‘쿨쿨한 바캉스 in 노랑’ 한부모가정에 온정 전해

☎ 전병권 기자 | ⌚ 승인 2022.09.02 09:43 | 📄 호수 809

위탁선정업체 장학금 50만원 기탁
매점 입주·임채성 팀장, 라면 200개 기탁



지난달 5일부터 10일간 이순신순국공원에서 진행된 ‘쿨쿨한 바캉스 in 노랑’ 행사를 즐기는 아이들이다.

남해군과 남해군관광문화재단이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고 이순신순국공원에 보다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준비했던 총 10일간의 ‘쿨쿨한 바캉스 in 노랑’ 행사가 지난달 15일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한부모가정을 위한 온정을 전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남해군관광문화재단은 이 기간 동안 남해군한부모가정 어린이와 군내 7개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참여자 쉼터라는 별도의 휴식공간을 제공해 오는 등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려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행사 종료 후 지난달 23일 남해군문화관광재단의 위탁을 받은 참여업체 두 곳에서는 남해군한부모가정후원회(회장 김정화)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써 달라며 50만원을 기탁

해 왔으며, 행사기간 이순신순국공원 매점에서 장사를 한 업주와 이 행사를 기획한 임채성 남해문화관광재단 팀장이 각각 라면 100개씩을 남해군한부모가정에 기탁해 왔다.

김정화 회장은 "쿨쿨한 바캉스 in 노량 행사기간 내내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는 남해군문화관광재단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는데, 행사를 마치고 이렇게까지 우리 지역의 어둡고 어려운 곳을 보살피는 데 마음을 보태어 주는 그들의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다시 한 번 감동 받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남해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병권 기자